☞ 27면에서 계속

다. 그렇듯이 사람도 그렇게 부대끼지 않는다면 진짜 사람노릇을 못한다 이겁니다. 아무리 금이라 할지라도 다듬지 않으면 금 값어치를 제대로 못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는 것을 금으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아이고 나는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힘들게 사나? 팔자운명이 얼마나 기구하길래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 내 운명이고 내 팔자지.' 하고 만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픈 가슴을 달래면서 부대끼고 주먹을 쥐고 땅을 치고 울어야만 하는 인생살이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대끼지 않고, 그렇게 채찍을 맞지 않고, 그렇게 구르지 않았다면 둥글게 되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데도 조금만 외부에서 닥쳐오면 속으로 온통 나 죽는다 하고 얼굴에 벌써 불편한 것이 나타나고 부증이 나고 야단법석이 나죠.

이 세상에 나오면 한 번 죽기는 일반인데 뭐이 그렇게 죽는 것이 원통하겠습니까마는, 자식들을 낳아놓고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죽을까봐 겁나는 거죠. 그런데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닌 이상에, 모든 마음의 착을 딱 떼어버리면 오히려 우뚝 서게 됩니다. 아둥바둥하고 그냥 야단법석을 하니까 우뚝 잘 설 것을 붙들어서 외려 깔아뭉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성은 다 제가끔 있거든요. 자기 뿌리들은 제가끔 있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선장이 제가끔 각자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으로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늘어진다면 오히려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되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하되 진짜 자비로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외려 놔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거든 오히려 착을 두지 마라 이랬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울고불고 그러지마는, 살 때는 부모님 속을 있는 대로 썩여놓고선 돌아갔다고 왜 울어요? 이래도 속썩이고 저래도 속썩이고 간을 찢는 듯이 아프게 만들면서 자라가지고서, 죽었다고 왜 우느냐구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자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물론 자기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울어야 마땅하지마는, 진짜 울어야 하는 자비는 그렇게 우는 게 아닙니다. 가슴속에서 동시에 같이 울어야 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리는 여러분이 더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말입니다.

조약돌이 물결에 닳아 반질거리듯 인생도 부대끼며 다듬어지는 것



그림 · 최주현

무주상 보시하려면…

문 스님, 함이 없이 보시를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함이 없이 보시 행을 할 수 있을 지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자세로 보시를 해야 조건 없는 무주상 보시가 될는지요?

답 우리가 보이는 큰 것을 보시를 해서 보시가 아니라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막론하고 하다못해 사탕 하나를 누구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조건없는 자비심으로 주었다면 그건 보시가 되는 겁니다. 사탕 하나라도 진짜 무주상 보시가 될 수도 있고, 보살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반면에 아무리 큰 돈을 가져다 누구를 주었다 하더라도 절대 무주상 보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를 주었는데도 왜 보살행이 안되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 내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도 누구에게 준 것만 생각하지 가져간 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는 얘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가게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왔는데 내가 그쪽 가게에 돈을 줬다고 말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 쓰는 말이고, 그래도 배워서 자리를 잡고 넘어가는 경우라면 조건 없는 무주상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조건 없이 무주상으로 해라 이런다면 힘이 들겠지만 알면 힘이 안 듭니다.

그것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생물에서부터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진화되고 형성되면서 이렇게 벌어진 생명들인데, 부처님께서 일대사의 인연으로서 그거를 다 아셨기 때문에 뼈 무더기 하나로 그 뜻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짐작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왔으니 우리가 전생이 있고, 과거가 있고, 또 어저께가 있고 오늘이 있고,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금방 저기 가서 또 부모가 돼버렸어요. 부모가 됐는데 또 저 집에 가서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네 자식 내 자식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이, 고정됨이 없이 그냥 자기가 차원대로,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금은 금대로, 금이 됐으면 금 방에 가고, 또 금이 넝마로 변했으면 넝마전에 가고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끼리끼리 차원대로 만난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가 가게에 물건을 진열해 놓은 거를 봐도 끼리끼리 놓여있지 절대로 섞어 놓는 법이 없습니다. 기사 분들이 법정에 가서 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가 익힌 기술대로, 자기가 하는 것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살게 마련인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돌아가면서 벌어졌다가, 오므라졌다 벌어졌다 이렇게 세상이 막 돌아갔는데 그거를 잘 따져서 보면 내 아님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알고 본다면요.

그러니까 둘로 보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이 없는 줄 알면 보는 내가 괴로우니깐 그냥 주었을 때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했을 뿐이지 둘로 보고 그 사람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나한테 내가 쓰는데 무슨 보시고 아니고가 있겠습니까. 주는 동시에 둘로 보지 않았으니 좋은 일을 했고, 보시를 했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건도 없고 보시란 이름도 없고 준 것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보살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분께서 법당에 보시금을 갖다 놓는다거나 어떤 물건을 갖다 놓는다거나

> 空心으로 보시해야
> 보살행
> 무주상 보시
> 조건없는 보시

스님들 앞에 보시를 한다든가 이럴 때, 내가 이 스님한테 이렇게 보시를 하면 꼭 우리 자식이 잘 되거나 남편이 잘 되거나 부인이 잘 되거나 우리 가정이 잘 되겠지 하는, 속에 깔린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깔린 요구 때문에 100% 받아갈 것을, 그냥 무주상으로 했으면 자기도 무주상으로 받는데 그 깔린 것 때문에 그걸 다 못 받아 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주상으로서, 얼른 쉽게 말해서 둘 아닌 고로 나는 내 자불, 자부처님한테 올린다 이런다면 자기한테 자기가, 자기 밥 자기가 먹는데 그걸 뭐 보시했다 뭐 했다 하겠습니까. 그걸 보시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진정으로 믿으니까, 그냥 빼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데 무슨 보시가 되고 무슨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이지, 그게.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자기가 조건 없이 한 것처럼 조건 없이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요구와 조건이 붙는단 말입니다. 조건이 붙으니까 조건대로 붙은 것 만치 덜 받게 되는 거죠. 공 하나를 다 받을 텐데 공에서 조금 떼어서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주 법계를 움쭉거리게 하고, 세상을 움쭉거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한생각입니다. '공생' 이러는 거는 모두 내 아픔과 내 생명인 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몸체를 가지고 지금 살아있지만 몸체를 안 가지고 살아있는 것도 많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해서 보시라고 한다면 공심으로서 보시를 해야 보살행이요, 무주상 보시오, 조건 없는 보시다 이겁니다. 또 내 마음과 둘 아니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이라는 속에는, 아픔도, 찢기는 마음도, 즐거운 마음도 다, 여러 가지 다 담긴 것이 한마음이 아닙니까. 내 한마음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자 무주상 보시이자 조건 없는 보시입니다. 그래야 아마 여러분께도 조건 없이 갈 겁니다. 조건 없이 가는 거는 둘째 쳐놓고 벌써 우주간 법계에서 전부 알게 돼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알게 되는 도리가 되죠. 이건 내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진리가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분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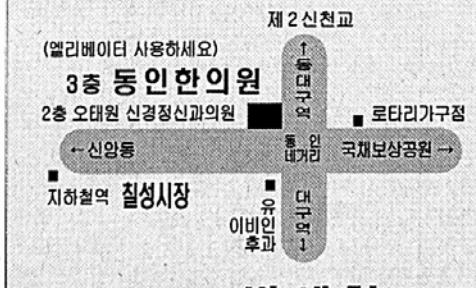
확장 개원 인사 올립니다

따스한 봄 날 아픔을 함께 치료하고 정신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작은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전의 동인한의원 자리는 동인명상한의원(원장 이성주)으로 개칭하여 진료를 하고
동인 네거리 부근에 **동인한의원**(원장 박세철)을 **확장 개원**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여 진료에 임하고자 하옴을 약속드립니다.

동 인 한 의 원

◇진 료 과 목◇
신경정신과(명상치료) 특이질병, 내과

◇진 료 시 간◇
●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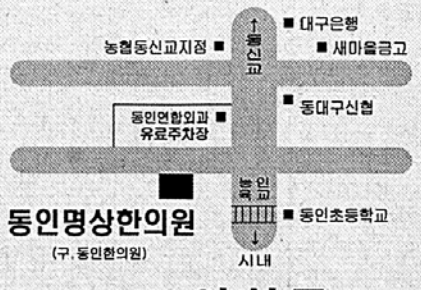


원장 **박세철**
☎053)422-4978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1가 361-6

동 인 명 상 한 의 원

◇진 료 과 목◇
부인과, 소아과, 내과, 침구과

◇진 료 시 간◇
●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원장 **이성주**
☎053)255-4978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4가 445-1

"부처님 인연에 오직 정성을 다합니다"

아 라 냐

스님을 위한 승복과 신도님이 입으실 법복,
오로지 정성을 다해 짓습니다.



승복 맞춤 판매전문
- 가사, 장삼, 두루막, 누비, 모시, 삼베, 승복, 신도복, 몸빼, 티셔츠, 남방, 방석 등

부산시 서면 지하철역 부전지하상가 F6호
051)818-8063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편증이 없어집니다.
- 판절의 통증과 붓기가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목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목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